

尹정부, 기재 추경호·국방 이종섭·국토 원희룡 등 8명 발탁

복지부 정호영·문체부 박보균·산자 이창양
여가부 김현숙·과기부 정호영 각각 내정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을 이끌어갈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국회 기재위 간사, 국회 예결특위 간사 등

을 맡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에 오른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은 예비역 중장이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를 맡아 국방분야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발탁됐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된 원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출마한 후 윤 당선인이 후보로 확정되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당선인 정책 특보가 낙점 받았다. 김 특보는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공약을 설계하는데 관여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밖에 첫 문체부 장관에는 중앙일보 부사장을 지낸 박보균 당선인 특별고문인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활동중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발탁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낙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지명됐다.

최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 이번주 컷오프 대상자 윤곽

내일 후보 면접 실시...여론조사로 컷오프 대상 결정
5개 기초단체장 18명·광역의원 69명·기초의원 92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 경선 구도가 이번주 컷오프를 통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6·1지방의원 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모한 결과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에 18명, 광역의원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광역의원 최다 신청지는 남구 1선거구로 7명이 신청해 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초의원 최다 신청지는 남구 가선거구로 3인 선거구에 10명이 신청했다.
기초단체장 최소 신청지는 북구로 문인 현 북구청장이 단수 후보로 나섰다. 문 청장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공천장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후보자는 ▲동구청장 강신기 김성한 임택 진선거 ▲서구청장 김보현 김이강 배인수 황헌택 ▲남구청장 김병내 김용집 박기수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김학실 박병규 윤난실 윤봉근 이영순 최지현 등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오는 12일 광주 동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또 재심과 이의신청을 한 후보가 발생한 광주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면접은 중앙당의 결정이 나오는데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면접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주 컷오프 대상자 윤곽이 나오면 2~3인 경선이 진행된다.
민주당 기초단체 경선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러진다.

기동취재본부

소병철 의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공사진척 박차

행정안전부 시책 특교로 '국비 30억 원' 추가 확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이어주는 통로인 '순천만 교량교'의 재가설 사업이 국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사진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8일 정월박람회 최대 현안인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을 독대하고, 실무진과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안부 시책 특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안부 시책 특교는 지난해 '2022년 예산안' 의결에서 확보한 40억 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국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먼저 소 의원은 '순천만 교량교' 구간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국비 투입을 받기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행사·박람회 개최 지원 전례가 있는 행안부 특교에 주목하고, 전 정관을 직접 독대하며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서 소 의원은 행안부 담당부서 과장 및

팀장 등 실무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특교 예산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사업이 단순히 국제행사·박람회 지원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닌 점도 부각했다.
해당 교량은 준공된 지 54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점과, 순천시민들을 포함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특교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지원되는 2022년 행안부 시책 특교 사업 중 가장 많은 재원인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든 후문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시책 특교 확보로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순천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순천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